

# 발제신청서 및 발제문

단체 이름	단체 대표 성함	발제신청자	
청년녹색당	배인영, 신영수	변규홍	
참가하게 된 동기 & 얻어갔으면 하는 것			
청년 정치세력화를 위해 그동안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논의를, 혹은 이미 제안되었지만 잊혀진 논의를 다시금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

발제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장이 담기면 더욱 좋습니다. ex. ~~로 ~~를 하자!)
기존 정치가 구조적으로 소외시킨 모든 시민의 정치참여, 청년정치세력화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우리의 이해관계를 밝히면서 나서는 과도기적인 첫 시작이다.
지정 질문 (3 분이내 발제할 수 있는 내용)
Q1. 청년이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필요한가요? 구체적 근거나 예시를 들어주세요.
<p>헌법에도 나와 있듯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원리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 관계를 조정할 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 즉 민주주의입니다. 따라서 청년들도 사회 공공의 영역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 자신과 타인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대학생 청년들의 경우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일 청년들이 등록금의 활용 방식이나 금액을 결정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등록금은 결국 대학의 다른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여 책정되고 활용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청년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조율에 참여해야 합니다.</p> <p>하지만 청년들은 이러한 정치 참여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를테면, 이 땅의 청년들은 교육 과정의 결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누리지 못해왔습니다. 교육은 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행위이며, 동시에 그러한 지식을 배우는 행위라는 양면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요로 합니다. 결국 무엇을 가르치느냐와 무엇을 배우느냐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2015 국가 교육과정 개편 공청회에서도 논의의 중심은 교육과정의 결정에 일부 교육 공무원만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크니 현장의 교사, 교수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서 그쳤습니다. 학생들은 참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엄연히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소외된 것입니다. 여러 대학에 설치된 등록금 심의위원회 또한 학생의 참여 없이 절차만 지켜서 등록금을 결정짓는 등의</p>

방법으로 청년들의 참여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학 이사회는 파행 운영에 대해 동국대, 감신대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무시당한 끝에 목숨을 걸고 고공 시위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정치 참여는 커녕 청년들의 외침이 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외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에 참여한 이들은 사회 구조를 결정하며, 그 구조의 모순은 자연스럽게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떠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육, 주거, 노동 등 청년들이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는 결국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청년들의 이해관계가 소외되었기에 비롯된 것입니다. 녹색당은 기득권 정당들이 시민을 향해 정치 장벽을 쌓고 자신들만의 정치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녹색당은 직접민주주의, 주민참여제도의 강화와 선거에만 의존하지 않는 정치 참여의 통로 개척을 통한 새로운 체제를 외칩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해당사자임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외치고 행동에 나서야만 청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것입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실효적으로 민주적인 등록금 심의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구성, 강화된 심의권으로 교육과정을 숙의하는 대학평의회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이처럼 청년 스스로가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고, 요구하고, 관철해야 할 때입니다.

Q2. '청년 정치세력화', 혹은 '청년 정당'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시나요?

흔히 청년 정치세력화를 청년이라는 계급 내지는 균질한 집단의 단일한 이해관계 관철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에 의해 규정되는 청년이라는 집단은 본질적으로 비균질적입니다. 대학을 간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의 이해관계가 다르며, 청년들 각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미래상, 이데올로기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흔히 청년의제라 일컫는 문제들의 본질은 사회구조가 내재한 문제를 인생에서 청년 시기에 좀더 직접적인 당사자로 맞이함에 있으며, 이해 당사자는 청년세대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청년을 넘어 모든 시민에 걸친 정치로부터의 소외에 있습니다.

녹색당은 소수의 대표자만으로 이뤄지는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기존 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구조의 건설을 외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청년 정치세력화가 갖는 의미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미명으로 일컬어지는 기존 정치, 기존 체제가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 따라 이미 정해진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객체로 전락한 청년, 그것이 청년의 오늘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문제의 본질은 청년만이 아닌 시민 모두의 오늘이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도기적 실천으로서 청년의 정치세력화부터 시작하여 시민으로 확대해 나가 결국 모든 시민의 정치세력화를 달성하자는 선언인 것입니다.

청년정치세력화는 이러한 선언과 함께, 청년 개개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 가치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사회상을 먼저 나서서 말할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미래가치를 지향하는

청년간에 대화와 토론, 공감과 설득이 이어지면서 청년간의 정치가 가능하게 됨을 뜻합니다. 그리고 청년간을 넘어 청년을 포함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청년이 스스로 의지를 갖고 발언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또 자유로운 분위기, 공간, 구조가 마련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청년 정치세력화는 청년은 물론 모든 시민 개개인에 걸쳐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며, 새로운 구조와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청년 정치세력화는 청년의 정치참여가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하여 청년이 정치의 영역에서 의미 있는 참여자로 자리매김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청년 정치세력화라는 말이 더 필요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모든 시민이 정치 참여자가 되는 날을 가져오는 것을 뜻합니다.

Q3. 2016 년 총선, 17 년 대선을 염두에 두었을 때,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어디까지 행동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ex. 투표, 정책 발의, 선거운동, 입후보, 창당 등)

청년 정치세력화는 여러 청년들이 당면한 몇 가지 개별적인 사안을 해결하는 식으로는 구조가 갖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진단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2016 년 총선, 2017 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단기적으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은 예시로 나온 투표, 정책 발의, 선거운동, 청년후보 입후보 등 기존 구조의 틀에서 상상하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청년간의 정치논의를 촉발하는 성과는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청년 정치세력화의 시작은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추어 정치 참여를 청년들의 일상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데 있습니다. 네이버 인기 연재웹툰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왕조실록을 만화로 그려내어, 저 멀리 한자로 적혀있던 조선의 역사를 쉽고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오늘의 매체로 옮겨왔습니다. 동아리의 대표자들만 참여하던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의 회의 속기록은 어느새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든 학생들이 함께 열람하고 읽어보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정치의 현장, 그 과정에 대한 청년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문턱을 낮추는 다양한 방법들을 상상하고,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는 비단 정치 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당면한 정치 현안의 소개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근 SNS 에서 각광받고 있는 카드뉴스와 같은 전달 방식을 대중화하고, 더 많은 정보와 담론을 보편적으로 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2015 대학구조개혁, 2016 년 최저임금 산정처럼 청년 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가득한 2015 년 6 월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 스스로 이러한 사안이 얼마나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지 좀더 쉽고 설득력 있게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정보 속에서 청년들은 정치란 것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바로 자신의 곁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청년들 스스로 자신이 이미 속해 있는 정치 구조, 사회 구조와 참여의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대중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대학의 학칙, 학생회의 회칙을 어떻게 하면 열람할 수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나 국회 회의록 열람, 입법 청원, 회의 방청 등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청년의 피부에 와닿는 예시와 함께 소개하고, 이를 소개받은 청년 스스로

실제로 행동에 나서서 이러한 참여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게임 섯다운제를 비롯해 자신의 살면서 겪었던 사회제도 하나 하나가 어떤 논의 끝에 결정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각 청년의 취향에 따라 그러한 사실관계를 스스로 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현재 자신이 속한 구조의 모순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발현되는 경험을 체화하고, 그러한 경험을 다른 청년들과 나누면서 누구나 쉽게 자신의 위치에서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경험을 재생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정 질문 외에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참고자료 (자유 분량)

녹색당은 논의의 효율성보다는 소통과 과정을 중시하며,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 결정 방식을 지향합니다. 흔히 민주주의를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이라고 오해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서울여대, 울산과학대 등지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학생회가 자행한 청소노동자 시위 저해 개입 등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형식만 남은 민주성은 자신의 단편적인 이익만을 고려하는 이기적 파시즘을 낳습니다. 청년 정치세력화가 단순히 근시안적인 청년의 이익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양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청년정치세력화라는 담론에 가장 가까운 당은 녹색당입니다. 일견 대중에게 별다른 부담 없이 받아들여지는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이라는 표어조차 녹색당에서는 아이들을 운동의 객체로 전락시키는 표현이 아닌지 심도 있는 토론의 대상이 되며 결국 폐기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떠안은 온갖 문제로 인해 자연스럽게 정치 참여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는 현실 속에서 녹색당은 전국운영위원회 회의에 청년 전국운영위원만 별도로 4 석을 할당하며, 그럼에도 평범한 당직자들 중 청년들을 만나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청년녹색당의 존재로 인해 녹색당 내에서 청년의 과다대표될지도 모르기에 그런 날이 온다면 기꺼이 새로운 기능으로 변화할 청년녹색당은, 그러나 지금은 청년 정치참여의 대중화를 당내에서 이끌기 위해,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쉽게 극복하기 힘든 요소인 나이의 문제를 넘어서서 자신의 생활반경에서 수시로 politics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층조직으로 기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학생조직, 청년조직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여유라는 말의 상실과 잉여라는 말의 대두에서 비롯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년 대중의 인식 속에서 정치참여, 사회참여는 여유있는 자들의 것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자신의 시간운용을 자신이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여유있는 자들이고, 이미 타인에 의해 시간운용이 강제된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하는 잉여시간의 운용밖에는 하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청년이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없는 잉여의 시대에, 반정당의 정당이며 대안 정당인 녹색당의 청년들, 청년녹색당은 외쳐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지금 갖고 있는 그 시간만으로도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늘려나가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금 잠깐 자신의 급한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조금 더 참여해도 된다고, 그렇다고 함께 외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태어날 때부터 청년이라고 불리지는 않았으며, 언젠가는 청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청년이라는 이 시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배움과 활동이 단지 스펙과 돈을 위한 배움이나 활동을 넘어 우리 개인과 우리 사회를 위한 배움이자 나눔임이 자연스러운 그 날을 꿈꾸며 글을 마칩니다.

발제에 필요한 실무준비가 있나요? (ex. PPT 를 써야한다, 영상을 봐야한다)

해당사항 없음